

## 지역에서 민속/학하기 - 공동체문화 연구의 성과와 가능성\*

강석민\*\*

### | 국문초록 |

이 글은 편제된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공동체문화 연구의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근대적 단순성에 근거한 인식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삶의 불확정성과 그 복잡성을 간직한 채 현실의 역동을 재사유하는 관점에서 민속과 공동체문화를 정의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속이 근대/성과 길항 혹은 공존하는 가운데 삶의 역량을 구성해온 토박이 문화이자 공생적 도구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선은 종획(enclosure)과 커먼즈(communs) 논의를 경유함으로써 자본의 지속적 종획에 맞서는 가치실천으로서 공동체문화를 해석하는 개념적 구상을 정초할 수 있으며, 현장 체류 연구, 학술판의 기획 등 다각화된 현장 참여적 방법론의 성과 역시 공동체문화 연구가 지닌 실천적 의의로 수렴된다. 만일 연구의 대상과 지식의 성격 양자 모두를 포괄하는 이른바 민속/학의 전회이자 그 확장으로서 공동체문화 연구를 다시금 정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포함하여 최근 발표되거나 작성된 논고들을 옮기거나 다시 정리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다 보니 고민과 작성의 시점과 방향성이 다소 이질적이고 형식상 완전성을 띠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한 심사자의 지적처럼, 학술 논문으로서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한 필자만의 연구노트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지역/학으로서 인문학의 방향성을 재론한다는 목적과 취지 속에서 이번 기획주제(『지방소멸 이후의 지역성: 지역기반 공동체, 다종적 정의, 그리고 대항정치의 미래』,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심포지엄, 부산대학교 박물관 가온, 2026. 2. 11.)가 설정된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 글의 내용은 지역에서 민속/학하기를 해오고 있는 필자의 초기 문제설정을 관련 요청에 따라 담아내고자 한 의도에서 작성된 것임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 국립경국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BK21교육연구팀 학술연구대우교수  
(seokminism@naver.com)

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위기 담론 속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소환되고 있는 지역 및 그에 기반한 여러 문제계들과 접속하면서 대안적 관계생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실천적 지식 생산의 기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복잡성과 얽힘 자체를 받아들임으로써 자본 중심의 가치체계로부터 비껴난 채 길항하는 다중(혹은 다중)적 가치실천을 사유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민속, 공동체문화, 총회, 커먼즈, 마을공화국

## | 차례 |

1. 편재된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복잡성을 간직하기
2. 삶의 역량 혹은 가능성으로서 민속의 특이성
3. 민속적인 것 혹은 공동체문화라는 연구 실천
4. 모색 과정과 현장 참여적 방법론의 다각화 시도
5. 하나의 연구 가능성, 관계생태로 보는 다른 삶의 지평

## 1. 편재된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복잡성을 간직하기

에드가 모랭은 20세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루어진 인터뷰<sup>1)</sup>에서, 다가올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즉 복잡성의 도전이 점점 증대되고 있고, 오늘날의 제반 현상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얼룩진 세기이자 근대적인 전체주의,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등장했던 20세기는 그에 의해 이른바 ‘야만의 세기’로 규정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90년대 초입에 있었던 소비에트 체제의 내적인 붕괴(implosion)를 시점으로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이 시기는 양차 세계대전과 전체주의의 세기이자 학살, 잔혹성, 광기

1) Edgar Morin·최연구 대담, 「불확실성의 21세기 어떻게 맞을 것인가」, 『당대비평』 제5호, 생각의나무, 1999, 22~37쪽 참조.

등을 동반한 고전적인 야만과 익명성, 냉정함, 비인간성 등의 특징을 지닌 현대적 야만이 동맹(alliance)을 이루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20세기는 바로 세계화의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그것이 세계대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핵 폭탄의 위협과 환경 생태계의 위협이라는 두 가지의 세계적인 죽음의 위협으로, 20세기는 위험이 한층 증대된 시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 현상이 점차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nel)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방법론, 즉 복합적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근대 이성이 구축해 온 환원·분리·단순화의 지식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대안적 인식틀로서 복잡성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복합체(complexus)란 어원적으로는 ‘함께 짜인 것’ 혹은 ‘함께 직조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관계 속에서 얽혀 구성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잡성 패러다임은 자연과 사회, 물질과 의미 등이 함께 작동하며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현실을 해석하는 데에 유용함을 지니고 있다. 즉 경제적·정치적·사회적·심리적·영적인 차원들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직조된 현실을, 다시 말해 복잡한 현실을 복잡한 방식으로 사유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sup>2)</sup> 여기에는 근대 과학과 이성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성과 애매모호함을 제거하고 단순성과 명료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단순성 패러다임은 세계의 질서를 부여한다는 명목 아래 무질서를 배제하고 하나의 법칙이나 원리로 현실을 환원함으로써 작동해 왔다는 것이다. 단순성의 핵심은 연결된 것을 나누고, 다양한 것을 통합하는 데 있다. 즉 분리와 환원이 그 기본 원리로 자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복잡한 현실을

---

2) Edgar Morin, *Introduction a La Pensee Complexe*, 신지은 옮김, 『복잡성 사고 입문』, 에코리브르, 2012, 54~55쪽 참조.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그 복잡성을 제거함으로써 현실에 폭력을 행사하는 맹목성에 이르게 된다.<sup>3)</sup>

복잡성 패러다임이 제안하는 것은 이와는 다른 방향의 인식이다. 즉 복잡성은 분리할 수 없는 이질적 요소들이 구성하는 하나의 망이며, 실제 세계를 이루는 사건과 행동, 상호작용과 반작용, 결정과 돌발적인 요소들이 뒤얽혀 형성된 상태를 가리킨다. 그렇기에 이 망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모호한 동시에, 질서와 무질서가 한 데 작동하며 구성된다. 그리하여 복잡성을 사유한다는 것은 곧 명료함을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과 미확정성, 우연성을 포함한 채 현실을 이해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sup>4)</sup> 이러한 인식틀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가능하고 효과적인 지점은 어쩌면 근대적 발전과 진보가 그려는 ‘큰 단순성’과 ‘큰 안정성’보다는 오히려 ‘작은 복잡성’과 ‘작은 불안정성’을 삶의 조건으로 간직하는 일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필자가 공부해온 민속/학과 공동체문화 연구의 장과 연관되며, 이에 그것이 가지는 위상과 전망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 글을 대략이나마 갈음하고자 한다.

## 2. 삶의 역량 혹은 가능성으로서 민속의 특이성

필자가 지역에서 민속/학하기를 해오며 체화된 시선이 있다면, 마을민속의 경우 특정하게 분절되어 존재하는 민속 현상 자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마을사회의 맥락에서 일정하게 체계를 이룬 문화로서 존속되고 있는 민속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는 시선이 아니었나 싶다. 다르게 말해,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채 변화되거나 또는 변화가 덜된 모습으로 향유

---

3) 위의 책, 90쪽 참조.

4) 위의 책, 20~21쪽 참조.

되고 있는 문화 체계로서 민속을 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생겨난 듯하다. 보편화·일반화·대중화된 문화 문법이 마을사회에 투입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해석과 해독, 변용과 전유가 주민들의 삶과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가온 듯하다. 지나간 과거의 민속 형태를 온전하게 발굴하여 보고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삶과 사회 구조가 조음하는 가운데 마을문화가 어떤 식으로 존속되고 운영되고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된 듯하다.

이제와 돌아해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함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가 이른바 ‘민속’이 고정되거나 물화된 형태로 지속(혹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점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와 관련하여 민속 역시 근대성과 매우 긴밀한 연관을 지닌 채 여전히 우리 앞에 매번 새로운 얼굴을 드러내며 존속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민속이 본격적으로 주목되고 연구된 계기는 서구 근대와의 마주침이었다. 즉 민속은 일제를 경유한 서구 근대와의 마주침을 통해 조사·보고·연구되었으며, 그것의 지속이라는 관념 역시 이때 형성된 지식에 의해 효과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뉼 백여 년을 지나오면서 그러한 민속의 형태가 존속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마을문화를 보는 시선의 전환 역시 요청되는데, 요컨대 변화하는 사회 구조 혹은 체제와 직접적으로 조음하면서 이전과 다른 문화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해방적 근대성을 추구하는 실천의 새로운 진지로서 그 자리를 매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그로부터 연구 대상과 영역의 확장 혹은 다양화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

---

5) 이러한 지점은 다양한 기술 방식으로, 또 여러 지면을 통해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특히 ‘민속의 종합’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대표하며, 이는 ‘포크 모더니티’라는 개념 혹은 범주에 대한 구상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민속학적 범주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로는 이영배, 『포크 모더니티의 언어들: 민속의 전회를 위한 분석 코드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5 참조.

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문화라는 문제계 또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민속지식의 생산 자체가 어긋나 있거나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종전의 민속학이 추구해온 연구 지향을 수용하면서도 대안 지식의 동시대적 생산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민속학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공동체문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의 진입 지점 혹은 입구 전략은 이반 일리치가 남겨둔 언급에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sup>6)</sup> 그는 전통 사회의 생계 방식과 언어 형성을 햇빛에 의존하는 문화라는 틀 속에서 설명하곤 했다. 이를테면 전통 문화는 햇빛을 생계의 원천으로 삼았으며 햇빛을 활용하는 주된 방법은 농사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팽이와 도랑, 명예와 같은 도구들은 햇빛을 부리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이들은 집중화된 공장에서 동력을 생산하거나 멀리 있는 수요자에게 그것을 운반하는 오늘과 다르게 독립적인 기술 체계로 존속하기보다 팔, 손가락, 다리의 연장(延長)으로 기능하는, 즉 인간의 신체와 분리되지 않는 생계 기술의 일부였음을 지적한다. 이때의 언어 역시 전문가에 의한 것이기보다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었다. 즉 냄새를 맡고 만질 수 있고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언어로, 이와 같은 토박이 언어는 대다수 물건과 서비스를 공유하듯 전파되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상호 교류하는 가운데 습득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일상생활에 박혀 있는 대화에서 나오는 것이면서도 싸움과 자장가, 소문, 이야기, 꿈을 듣는 가운데 만들어지곤 했던 것이다.<sup>7)</sup>

그의 논의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토박이’(vernacular)라는

---

6) 아래 내용은 강석민, 「공동체문화의 역사적 원천과 민속적 의미」, 『한국민속학』 제79집, 한국민속학회, 2024, 30~32쪽 참조.

7) Ivan Illich, *Shadow Work*, 노승영 옮김, 『그림자노동』, 사월의책, 2015, 116~117쪽.

말이다. 이 용어는 라틴어 베르나쿨룸(vernaculum)을 어원으로 두고 있다. 어원상 그것은 집 안에서 자라나고, 길러지고, 만들어진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는 토박이라는 개념이 시장 교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간의 행위들, 일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이고 비시장적인 활동들, 나아가 능력·욕망·관심사에 따라 수행되는 다양한 실천들<sup>8)</sup>을 포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근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즉 자급자족적 삶(subsistence)으로부터 시장경제가 분리·추출되어 나온 과정을 근대의 핵심적인 역사로 파악할 때, 비로소 자연의 사용 가치와 공동체 내부의 호혜적 관계가 지녔던 의미들이 다시금 조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공생적’(convivial)<sup>9)</sup>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근대적 성장 패러다임을 거스르거나 지연시키는,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적 세계 질서를 모색해 본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그가 말하는 ‘공생’이 그저 평준한 공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공생은 사람들 사이, 그리고 인간과 환경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상호작용을 가리킨다. 그러한 공생에 이를 때, 개인의 자유는 상호의존성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생은 사회적 조건으로만 이해될 수 없는, 어쩌면 윤리적 가치에 해당하기도 한다.<sup>10)</sup> 이러한 관점은 앞서 말한 ‘도구’에 대한 오래된 이해로도 다시금 확장된다. ‘공생적 도구’란 사용자 자신의 삶의 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자 동시에 기술 발전의 한계를 사유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준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sup>11)</sup>

우리 시대의 민속을 탐구하는 일의 중요성 또는 특이성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본주의가 남긴 폐허 속에서도 삶의 가능성을 사유하

8) 위의 책, 100쪽.

9) Ivan Illich, *Tools for Conviviality*, 이한 옮김, 『성장을 멈춰라!』, 미토, 2004, 13쪽.

10) 위의 책, 31~32쪽.

11) 위의 책, 41~45쪽.

는 작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을 예외적 상태로 간주해 버리는 대신, 그것을 가변적인 관계 속으로의 내던져짐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타자뿐 아니라 우리 자신 역시 다시 형성될 수 있는 여러 계기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위기의 편재성 역시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에 해당할 것이다. 민속/학과 그 방법론적 혹은 실천적 대안을 추구하는 공동체문화 연구는 이러한 제반 조건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삶의 역량과 그 대안적 가능성을 탐색<sup>12)</sup>하는 실천학문으로 그 자리를 매길 수 있을 것이다.

### 3. 민속적인 것 혹은 공동체문화라는 연구 실천<sup>13)</sup>

한국적 층위에서 인문학의 한 분야로서 민속학이라는 분과학문적 위치가 지니는 특이성을 고려해 본다면, 민속 그 자체가 소수적이기도 하지만, 민속학은 주로 우리 사회에서 주변적이고 소수적인 존재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기록해 왔다고 할 만하다. 특히 역사문화적인 관점에서 마을과 마을문화,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탐구를 진척시켜 왔고, 공동체문화 연구는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마을문화가 새롭게 부상하는 흐름에 주목하여 이를 민속적인 것의 새로운 배치로 천착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지배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근대의 타자’로서 민속과는 다른 관념이자 이론으로서 공동체문화를 정립하는 연구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흐름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공동체’가 현 상태의

---

12) Anna Lowenhaupt Tsing,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On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 노고운 옮김, 『세계 끝의 버섯: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삶의 가능성에 대하여』, 현실문화, 2023, 51~52쪽.

13) 이 장은 강석민, 『마을공화국의 실험과 전환: 공동체문화론으로 본 민속적 사회생태의 변환과 생성』, 민속원, 2024, 1장 3절의 내용을 이 글의 논지에 맞게 재정리한 것이다.

위기와 함께 도래하는 관념이자 역량으로서 소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근대 국가와 시장의 '외부'로서 자연과 생태 그리고 공동체가 문화 현상 전반에서 부상하는 흐름이 포착된다. 민속지식이야말로 생태,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내고 정립하는 작업을 수행해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면, 민속학의 관점에서 이런 현상은 무척 주목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는 궁극적으로 생태적, 공동체적 실천과 연결된 민속학을 정립하는 작업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는 특히 현시대의 대안을 상상하고 추구하는 지식 자원이자 이들이 교차하는 장 혹은 결절점으로서 민속학의 자리를 매길 필요성으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필자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과 장곡면 지역을 자율적인 마을 혹은 체제로 보고 접근하여, 현장조사와 참여관찰을 통해 총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조망하는 작업<sup>14)</sup>을 미진하게나마 수행해 왔다. 이 지역 실천에 주목하는 이유는 오늘날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공동체 문화 실천의 양태들을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주요 사례로 판단했고 또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부재하는 데다, 민속적인 것 혹은 공동체문화 연구라는 자리에서 마을민속 연구 방법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런 한편으로, 필자가 다년간 소속되어 공부했던 민속학연구소가 수행한 공동체문화 연구의 핵심적·초기적 집중 연구 사례라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계보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작업은 이른바 '민속/학의 전회', 더 구체적으로는 '민속연구에서 공동체문화 연구로의 전회'를 표방하는 흐름과 합류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앞서 말한 '민속적 근/현대성', 즉 '포크 모더니

14) 강석민, 「연대의 정동과 대안의 체제화」, 『동방학지』 제205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3, 63~91쪽; 강석민, 앞의 글, 2024, 7~36쪽; 강석민, 「부채의 양가성과 공동체의 가능성」, 『코기토』 제105권,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5, 201~244쪽.

티'의 문제의식과 결부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민속학이라는 입지가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론틀의 정립이 다소 미비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내부의 각주'가 존재하지 않아 '외부의 각주'가 필요했고, 해당 작업에서 주요하게 참조한 '커먼즈'(commons)는 그러한 상황에서 채택된 '외부의 각주'라 할 만하다. 커먼즈는 민속학의 전회를 위해 필요한 주요 이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속과 커먼즈는 역사적으로 친연성을 지니는데, 국가와 시장이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근대 세계가 있고, 종획(enclosure)이 그것을 근거짓는 장치가 된다면, 민속과 커먼즈는 그에 대항하는 이론적 실천 혹은 실천적 이론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커먼즈는 상이한 층위에 있는 실천이 만나 상호적인 외연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적 기획의 상상이자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안 추구의 기획 속에서 실천과 운동 및 연구자와 지식의 교차 혹은 접촉이 가능한 매개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종획과 커먼즈, 이 두 이론의 출발점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분석에 활로를 열어준 맑스주의의 시초축적에 대한 해석 지평에 있다. 시초축적론에 따르면, 생산수단과 생활수단 그리고 화폐와 상품은 처음부터 자본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이 자본으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 조건을 필요로 한다. 즉 화폐·생산수단·생산자라는 자본 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관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시초축적이라는 것이다. 맑스는 자본의 축적 과정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그 생산양식의 출발점으로서 이와 같은 시초축적을 상정한 바 있으며, 그는 시초축적을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역사적 분리 과정으로 규정하면서 이것이 자본의 생산양식의 전사(前史)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sup>15)</sup> 그러나 시초축적론은 전형적인

---

15) 맑스가 자본 축적의 분석틀로서 이론화한 시초축적은 본원적 축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는,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하고 자본을 통해서 잉여가치가 만들어지며 또 잉여가치에서 더 많은 자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반대로, 자본

발전 모델 내의 계보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종횡을 이론에서 주변화한 한계가 있다. 데 안젤리시에 따르면, 시초축적론에 의해 자본의 수탈 과정은 자본주의의 전제조건으로 머물게 되고 시초축적과 자본의 논리가 오히려 뚜렷하게 분리되어버리는 한계<sup>16)</sup>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해야 할 것은, 우리가 대안을 사유하는 일에 있어 이와 같은 정통 맑스주의는 무기력함만 던져준다는 사실, 그리고 종횡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성행하고 있는 ‘자본 논리’의 지속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 종횡은 전제 조건으로서 자본주의의 ‘역사’가 아니라 지속 조건으로서 자본주의의 ‘원리’이며, 공간적·시간적으로 한정된 일회적인 사태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수 세기에 걸친 과정이자, 자본가 계급이 위기의 시기에 언제나 의지하는 전략<sup>17)</sup>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자본의 가치실천은 종횡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자원들을 율타리치는 방식으로 사유화를 추구한다. 그것은 하나의 원리인 만큼 지속적·반복적·체계적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궁극적인 차원에서 볼 때, 종횡을 앞세우는 과정을 통해 성립되는 자본주의는 여타의 가치실천들을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해야만 작동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미드나잇 노트의 새로운 종횡에 대한 분석<sup>18)</sup>이 주목된다. 이

---

의 축적은 잉여가치를 전제로 하고 잉여가치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로 하며 또 자본주의적 생산은 대량의 자본과 노동력이 상품생산자들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 또한 지적한다. 그는 이 운동과정 전체가 하나의 악순환을 이루면서 회전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결과가 아니라 그 출발점으로 축적을 상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에서의 시초 축적이란, 이를테면 신학에서의 원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Karl Marx,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강신준 옮김, 『자본론』 I-2, 길, 2008, 961~965쪽).

16) Massimo de Angelis, *The Beginning of History: Value Struggles and Global Capital*, 권범철 옮김, 『역사의 시작: 가치 투쟁과 전 지구적 자본』, 갈무리, 2019, 256쪽.

17) Silvia Federici & George Caffenzis, “Commons against and beyond Capitalism”, 권범철 옮김, 『자본주의에 맞선 그리고 넘어서 커먼즈』, 『문화과학』 제101호, 문화과학사, 2020, 176쪽.

18) Midnight Notes, *The New Enclosures*, Jamaica Plain, MA: Midnight Notes, 1990.

들의 분석은 현재에도 갈등 속에서 진행 중인 당면 과제로서 종획을 상정하여 현대의 문제계로 옮겨온다. 나아가 이들은 시초축적론처럼 종획을 특정한 시기의 역사적 형태에 한정하거나 혹은 어제와 오늘을 분리하지 않고 그 함의를 다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들의 종획론은 역사적 형태만을 강조하는 교조적인 연결이 아니라 정치전략적 연결을 위해, 다양한 역사적 시기에 공통적인 자본의 내재적인 충동과 역사적 우발성을 절합<sup>19)</sup>하는 작업의 차원에서 제기된다. 그리하여 종획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것이 흡수와 전유의 전략을 띠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원리라는 점이 강조된다. 다만 주목하고 싶은 점은, 종획이라는 아이디어가 주는 역설적 측면이다. 이를테면 종획은, 정적인 혁명모델의 종언으로 인해 급진운동이 약화되고 신자유주의에 의해 모든 형태의 생명과 지식이 시장논리에 종속되는 상황에 대한 위기 인식을 오히려 고조시킬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자산과 그 관계들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계기<sup>20)</sup>가 되고 있다. 즉 종획은 자본의 전략이 오히려 노출되어버린 공간으로, 가치실천들 간의 내전(內戰), 즉 우리 주변에서도 상시적으로 대립과 투쟁이 일어나는 전장(戰場)이 된다.

더 나아가서는, ‘종획할 것이 없다면 종획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통해 ‘커먼즈의 지속적인 현전(現前)’<sup>21)</sup>이라는 착상이 도입된다. 복잡하고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오늘날 종획 양식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수행되는 가운데, 그 공간을 투쟁의 지형으로 설정함으로써 이중운동 혹은 상호충돌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나타날 수 있는 회복과 대안의 협력적 선택지로서 커먼즈<sup>22)</sup>가 사

19) Massimo de Angelis, 앞의 책, 273쪽.

20) Silvia Federici, *Revolution at Point Zero: Housework, Reproduction, and Feminist Struggle*, 황성원 옮김, 『혁명의 영점: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갈무리, 2013, 236쪽.

21) Massimo De Angelis, “The Strategic Horizon of the Commons,” in *Commoning: With George Caffentzis and Silvia Federici*, Ed., Camilli Barbagallo, Nicholas Beuret and David Harvie, Pluto Press, 2019.

22) 물론 커먼즈는 한국적 상황과 개별 연구자들의 관점을 반영하면서 이론적 지형·진영과

고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커먼즈라는 기획이 주는 독특함은 이와 같이 ‘비판과 저항’의 관점에서 사회운동 혹은 정치양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커먼즈라는 기획과 구상이 던지는 중요한 화두는 ‘협력과 구성’의 관점에서 대안적인 가치체계 혹은 생산양식에 관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세계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종속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주장이 특히 유효하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우리 세계를 구성하는 전체가 아닌 하나의 부분집합, 즉 사회적 재생산 체계에 속한 하나의 하위체계에 불과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가치는 가능한 수많은 가치체계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을 그 핵심으로 하는 가치법칙의 적용이 경제적 기본 원리가 아니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자로 하여금 생산수단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주체성을 한쪽으로 정향시키는 정치적 과정<sup>23)</sup>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면, 그 결과로서 화폐가 재현하는 가치 척도는

---

쟁점·담론적 갈래·연구 범주와 접근 방식에 따라 그 분류와 탐색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를테면 권법철은 그 지형을 ① 공동자원 관리 제도(하단, 오스트롬), ② P2P 협력 생산 모델(블러어, 바우웬스), ③ 대안적인 생산양식의 씨앗(카펜치스, 데 안젤리스, 페데리치), ④ 자본의 커먼즈로 구분한다(권법철,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제101호, 문화과학사, 2020, 17~49쪽). 정영신은 그 차원을 ① 커먼즈 연구 진영(복미적 전통, 자원관리 패러다임, 보편적 권리), ② 커먼즈 사회운동 진영(유훈적 전통, 커먼즈의 정치, 시민적 가치)으로 구분한다(정영신,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제23권 4호, 한국아시아학회, 2020, 237~259쪽). 안새봄은 그 갈래를 ① 기술적 커먼즈론(비극론, 드라마론, 이중운동론), ② 수정적 커먼즈론(자유주의, 공화주의, 시민주의), ③ 변혁적 커먼즈론(자율주의적 커먼즈론)으로 구분한다(안새봄,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ECO』 제24권 1호 한국환경사회학회, 2020, 333~370쪽). 윤여일·최현은 한국학계에서 이루어진 자원론적 접근 경향을 중심으로 ① 공동체 공동자원(community commons), ② 공중 공동자원(public commons)으로 양분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윤여일·최현, 「21세기 한국학계 공동자원 연구의 전개와 과제」, 『공동체문화와 민속연구』 제5호,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23, 45~77쪽). 현실 커먼즈 운동의 부상과 그 담론의 활성화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외에도 더 많은 분류법이 있거나 앞으로 더 생겨날 수 있다. 다만 분명한 점은 커먼즈가 인문사회 담론과 사회정치 운동의 영역에서 일정하게 통합적 패러다임을 현재의 시점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23) Harry Cleaver, *Reading Capital Politically*, 조정환 옮김,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질적인 활동이 양적으로 환원된 것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자기 결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지점에서 사회적 세력(social force)이라는 설정은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의 충동과 텔로스(telos), 그리고 자기보전의 코나투스(conatus)를 지닌 사회적 힘들(social powers)의 연결 혹은 절합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자본은 인간 및 비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스며들기를 열망하며 그 모든 영역을 자신의 행위 양식으로, 따라서 특유의 사회적 관계로, 즉 사물을 가치화하고 그 결과 사물의 질서를 만드는 자신의 방식으로 식민화함으로써, 모든 가치 실천들을 자신의 가치 실천에 종속시키기를 열망하는 단 하나의 사회적 세력에 해당한다.<sup>24)</sup>

이 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가치에 관한 다른 관점과 이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그것의 이탈적·복수적·대안적 추구, 즉 다른 가치들의 독립적 구성을 위한 자율적인 살림살이의 기획들이다. 특정한 가치체계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행동과 과정,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협력의 관계망을 가치실천이라고 할 때, 우리의 세계는 다양한 가치실천들로 이루어진 가치체계들의 대립과 충돌, 갈등, 즉 가치투쟁이 벌어지는 매우 역동적인 공간으로 상정된다.<sup>25)</sup> 이러한 생각을 통해 우리는 무한한 이윤을 추구

---

갈무리, 2018, 221~283쪽.

24) Massimo de Angelis, 앞의 책, 88쪽.

25) 우리의 세계에는 경제법칙으로 가치화되지 않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경제 형태라고 하는 것 또한 그 모두가 이윤 가치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주장 하에, 자율적인 '살림살이' 내지는 '자급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구체적인 활동들에 착목함으로써 지배적인 경제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새로운 경제 담론이 생성되고 있다. 생산 활동은 삶형태 전반의 활동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은 비가치화되었을 뿐이므로 그러한 활동을 다른 척도로 가치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특히 '공동체'와 '자연'은 자본의 코나투스의 내부에 있지만 거기에 흡수되지만은 않는 외부, 즉 자본의 생산과 재생산 순환고리에 절합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가치들이 추구되기에 오히려 용이한 영역에 해당한다(Massimo de Angelis, 앞의 책, 141~143쪽). 이를테면 '자본주의적 경제'라는 헤게모니가 장악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유쾌한 공생 활동들(Ivan Illich, 앞의 책, 2004)이나, 임금 계약과 노동으로 이루어진 자본 축적만이 경제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는 빙산을 뒤집어, 수면 아래에서 식민화되고 있는 비공식 경제, 즉 자연 활동

하는 자본의 척도를 그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투쟁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투쟁이라는 것이 다른 척도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이어받을 때, 우리는 종합이 벌어지는 공간을 곧 서로 다른 척도를 구성하고 추구하는 공간이자 상이한 사회적 세력들의 투쟁과 갈등이 이루어지는 전선(戰線)들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커먼즈는 사회적 협력과 공통적인 것의 회복을 기초로 한 대안적인 생산 양식의 구상을 담은 실험에 해당한다. 또한 이것은 어느새 질서화 되어 버린 종합에 맞서거나 오히려 그에 앞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담론과 현실을 넘나들거나 때로는 이들의 결합을 추진하면서 근대 국가와 자본의 바깥을 상상하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 체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제 역사를 써가고 있는 실천·운동·기획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 속에서 짚어볼 만한 점은, 커먼즈의 정의가 단순히 재화 혹은 그 재화에 대한 접근권과 관리 규칙으로만 한정된 것에서, 점차 집단적 삶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 혹은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실천을 절합하는 가치실천 양식 전반에 대한 관심과 실험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

과 비고용노동을 비롯한 비자본주의적 경제 형태 혹은 지역 차원에서 삶의 필수 요소를 자율적으로 영위하는 실천들(Maria Mies & Veronika Bennholdt-Thomsen, *The Subsistence Perspective: Beyond the Globalised Economy*, 꿈지모 옮김,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힐러리에게 암소를』, 동연, 2013, 75쪽), 그리고 비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들 혹은 경제적 차이의 경관들을 생산·상상·강화·건설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자본주의 헤게모니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담론공간을 개척하여 경제적 다양성의 언어를 생성함으로써 경제적 상상을 확대시키며 타자와 공존하는 윤리적 정치경제가 생성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체경제(J. K. Gibson Graham,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ew it*, 엄은희·이현재 옮김,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여성주의 정치경제 비판』, 알트, 2013; J. K. Gibson Graham & Jenny Cameron & Stephen Healy, *Take Back The Economy: An Ethical Guide For Transforming Our Communities* Licensed, 황성원 옮김,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타자들과 공존하기 위한 경제 탈환 프로젝트』, 동녘, 2014)를 표면화하는 작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근대 국가와 자본의 종획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인식 속에서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획은 일방향이 아니다. 이 세계에서 종획은 다른 가치실천들과 충돌하는 하나의 가치실천으로, 그것은 '상품화와 종획'을 통해 세계를 만드는 '자본'이거나 아니면 '대항 종획과 커먼즈'를 통해 세계를 만드는 '나머지 우리'<sup>26)</sup>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필자는 해당 사례를 통해 '마을공화국'<sup>27)</sup>을 추상화하여 도출해보기도 했다. 마을공화국은 마을을 거점으로 한 대안적 체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속가능한 작동 체계(system)임과 동시에 지배 체제에 대한 비판 및 문제제기(regime)를 함축하고 있으며, 오늘의 조건에 걸맞은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혹은 민속사회에 대한 가능한 이름으로 거론해보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경제와 사회, 문화의 심급이 지역적이고 토착적인 수준에서 상당 부분 유기적이고 자율적인 차원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지식화에 따라 상호 참조가 가능한 모델로 되고 있어, 국가와 시장 중심의 근대와 조응하거나 길항하는 근대성의 여러 형태들로서 기획되고 실험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4. 모색 과정과 현장 참여적 방법론의 다각화 시도<sup>28)</sup>

공동체문화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마을문화/민속의 재현과 변환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질문들 중 하나의 관점이자 방법론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민속연구의 새로운 전회'라는

---

26) Massimo de Angelis, 앞의 책, 257쪽.

27) 강석민, 앞의 책.

28) 이 장은 강석민, 앞의 책, 1장 4절의 내용을 이 글의 논지에 맞게 재정리한 것이다.

언술로 표방하는 것 또한 전국적으로 구체화·활성화되고 있는 공동체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 작업을 근거로 하여 마을문화/민속의 현재적 위상을 민속연구라는 명확한 입지에서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목적을 함축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에 따라 공동체문화 연구는, 안으로는 마을문화/민속에 대한 인식에서 발견되는 전(全)시대적 고정성·영속성·정체성을 문제 삼는 위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런 만큼 밖으로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복잡하고 시의적인 문제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학술적 경로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방법론·목적·위치·경로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할 때,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현행화되고 있는 공동체문화 현상과 자료들에 대한 접근 방식일 수 있다. 압축적이고 혼종적인 근대화 과정을 지나오면서 한국사회는 언뜻 보기에 매우 복잡한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질서의 재편을 그 역사 속에서 거듭해왔다. 그에 따라 국가와 자본, 제도와 정책, 시민과 현장 등이 상호 대립하거나 적극적으로 교섭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사회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이끌어왔다. 하향식 통치와 상향식 운동이 마주치거나 협상하는 가운데 무수한 조직체와 협의체, 재정과 지원책, 조례와 법령, 공론장과 논의 구조 등 상이한 목적과 지향을 지닌 주체 내지는 공간들이 조성되었으며,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실무, 활동과 협상 과정을 담아내는 현장 혹은 제도 지향적 양식들이 형성되었다. 요컨대 이러한 면모들이 한국의 사회운동 특유의 복잡다단한 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간의 민속연구가 견지해온 관점 속에서는 이러한 역동적인 현상에 접근해갈 수 있는 입구 전략 혹은 방법론적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sup>29)</sup>이었다는 데 있다. 그러한 가운데, 공동체문화 연구는 그

---

29) 물론 마을만들기 내지는 사회적경제라는 연구 대상 혹은 범주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계열의 연구 성과들이 민속학적 입지에서 일견 진척된 바 있다. 다만 이러

와 같은 현상과 자료에 대한 관심을 공동의 연구 과제로 주제화하여 장기간에 걸쳐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에 해당한다. 공동체문화 연구가 밟아온 그간의 행보를, 다소간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민속연구 담론과 공동체문화 현상을 엮어짜는 공동의 기획이자 실천의 과정들<sup>30)</sup>로 규정할 수 있다면,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과정의 어느 한 지점에 그 자리를 매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 과정을 ‘현장 참여적 연구 방법’의 외연을 넓히고 다각화한 것으로서 열어둘 때, 공동체문화 연구라는 공동의 기획을 여럿과 함께 통과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곳의 ‘현장’을 마주하였다.<sup>31)</sup>

한 시도들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적인 측면과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개별 연구자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에 전적으로 의존한 채 파편적으로 이루어진 나머지 이를 민속학 연구 지형의 한 영역으로 구축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 한 가지라면,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민속학적 관점과 그 의의를 대체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이 또다른 한 가지이다. 이러한 그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장 지향적 탐구와 대상 사례의 전경화만큼이나 연구 관점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만일 공동체문화 연구를 하나의 연구 기획이자 그 통합적인 계기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 30) 그에 따라 공동체문화 연구는 집단적인 차원에서 연구 대상에 접근할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학술 기획을 통해 방법론적 수준을 높여나감으로써 종래의 학문 환경이 지닌 한계를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은, 단계에 따라 집중 연구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독자적인 학술 성과를 축적하는 한편, 학술 영역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전국 각지의 마을 실천가/활동가들에게 열려 있는 학술행사들을 다양하게 기획하는 등 여러 실험적인 시도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홍동·장곡면은 초기 집중 연구 지역으로서 이와 같은 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사례에 해당한다.
- 31) 필자에게는 이와 같은 집단 연구 과제에 참여하게 된 것이 이 연구에 착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다만 그것이 전적으로 불연속적인 과정이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을문화/민속은 필자가 놓인 민속학이라는 학문 환경에서는 끊임없이 또 오랜 시간 동안 강조되어온 영역이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환경에 녹아들어 수학과 있었던 필자 개인에게도 그것은 핵심적인 연구 관심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늘 의문이었던 점은, 급변하는 사회문화 상황에 대응하면서 마을문화/민속의 현상과 인식 또한 상당한 정도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학문 환경이 증점적으로 구축하고 있었던 재현 체제 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천착과 분석이 좀처럼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점이었다. 특히 개인적으로

첫 번째 현장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과 장곡면이라는 ‘지역’이다. 연구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한 3일 간의 마을탐방을 통해 해당 지역이 지닌 특유의 문법에 대해 강렬한 인상을 받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이 현장에 뛰어들어 참여관찰을 시작한 것은 그 뒤였다. 집단 연구 과제를 보조하면서도 장기체류 연구 제도를 통해 약 9개월 간 해당 지역에 머물면서 참여관찰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여건상, 한 차례의 체류 조사만으로는 표면화된 현상과 활동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역사적 지층과 역동적인 흐름들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다분했고, 한동안 지역 사례에 대한 민속학적 접근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하면서도 각 분야 및 조직별 역사와 운영 방식에 대한 학습을 진전시켰다. 그리고 그 뒤 약 2개월에 걸쳐 개별 주체들에 대한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염두에 둔 것은, 개별 주체에 대한 수동적인 인터뷰가 아닌,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공유하면서 그와 연계된 지역의 내막과 시선을 읽을 수 있는 상호 참조적 대화를 지향하고자 한 것이었다.

두 번째 현장은 공동체문화 실천과 연구의 만남이라는 맥락에서 기획된 ‘학술판’이다. 공동체문화 연구 기획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 현장 외에도 연구의 거점이 되는 지역인 안동에 새로운 현장을 마련해왔다. 그것은 ‘그곳’의 현장을 ‘이곳’의 현장으로 옮겨온 것이면서도, 서로 다른 현장이 마주치는 중간지대의 현장을 구축하는 실험이기도 했다. 그 현장은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콜로키움, 컨퍼런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획되었고, 주제에 따라 혹은 활동 영역에 따라 색다른 환경의 현장들이 그때그때 조성될 수 있었다. 이 현장은 참여관찰자 혹은 연구자 개인이 현지에 투

---

‘마을행동’이라 부를만한 현상들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생기게 되면서부터는 그러한 난관이 더욱 크게 다가오기도 하였다. 필자는 2018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동체문화 연구 과제를 보조하면서 다양한 현장들을 마주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

입되어 적응해가는 필드워크에 한정된 것이 아닌, 초대 및 협업 내지는 환대에 기초하여 집단과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이 비교적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새로운 형식의 필드워크로서 방법론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표 1〉 민속학연구소 공동체문화연구사업단 주최 흥동·장곡 지역 사례 발표 목록

번호	발표주제명	발표자명	행사명	발표일	행사장소	
①	농촌마을 공동체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과제: 흥동-장곡 지역 사례	정민철 (짧은협업농장)	제1회 워크숍	2018. 12. 7.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②	홍성군 지역거버넌스 '홍성통' 운영의 성과와 한계	권봉관 (홍성군청)				
③	왜 흥동 지역사회에 주목하는가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회 컨퍼런스 (지역에서 일구는 미래, 공동체문화 재생의 동력과 실천들)	2019. 2. 27.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④	학교와 지역사회: 풀무학교와 흥동	정승관 (풀무농업 고등기술학교)				
⑤	환경농업이 가져다 준 지역운동	주형로 (전국농산어촌 인성학교협의회)				
⑥	홍성지역 풀무생협과 풀무신협의 역사와 문화	염찬희 (성공회대)				
⑦	지역재생을 위한 풀뿌리 지역 언론의 실천과정과 의미	이변영 (홍성신문)		2019. 2. 28.		
⑧	농업, 농촌 그리고 청년	정민철 (짧은협업농장)				
⑨	자연농을 통한 공동체 재생과 의미	금창영 (자연재배협동 조합)		2019. 5. 10.		안동대학교 지역산학 협력관
⑩	행복농장 (farming for happiness)	최정선 (행복농장)		제3회 컨퍼런스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역사적 조명과 패러다임의 변화)		2020. 7. 16.

번호	발표주제명	발표자명	행사명	발표일	행사장소
⑪	홍동지역 마을교육 시즌2를 준비하는 '햇살배움터'	이재혁 (햇살배움터)	제5회 컨퍼런스 (공동체, 배움길, 미디어)	2021. 5. 1.	온라인
⑫	장애와 농(農) 촌(村)을 연결하면, 우리동네 밭달장애인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최문철 (꿈이자라는뜰+ 홍성우리마을 의료조합)		2021. 5. 2.	

연구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현장이 가지는 중요성은, 발표나 토론을 통해 길게 언급되는 지나간 사실의 합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러한 공식적 발화를 계기로 자신의 어떻게 재구조화하여 하나의 진실로 구성하는지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발표자로 초청된 활동가들은 기획과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내력을 정리하면서도 현장이 기획한 대주제에 맞게끔 그것을 정연하게 간추리는 작업을 거친다. 학술판이 벌어지는 현장은 더욱 직접적이고 역동적이다. 청중의 분위기와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발표자는 자신의 생애와 경험, 에피소드와 여담을 곁들이는 즉흥적인 의미화 과정을 통해 사전에 준비된 것보다 훨씬 증층적인 서사를 구성한다. 뿐만 아니라 여타 발표를 비롯하여 다른 참여자들의 언사에 대한 인용과 재인용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다양한 서사들이 서로 이어지거나 때로는 충돌함으로써 현장에서는 풍부한 의미들이 생성되며 참여자들의 공감대는 넓어진다. 연이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토론 과정에서는 열린 소통을 통해 발표자와 청중, 전문가와 실천가/활동가, 연구자와 일반 대중에게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제공된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 소통과 협력 속에서 학술판이라는 새로운 현장을 마련하는 일은 공동의 실천을 구성해가는 과정적 산물이자 직접 배움의 계기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 실험으로 생각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조사-제보라는 닫힌 틀에서 벗어나 다수와 다수가 만나고 각자의 생각과 느낌, 열정과 배움들로 채워가는 현장, 즉 마주침의 현장으로 여겨질 만하지 않을까 싶다.

〈표 2〉 흥동·장곡 지역 사례 문헌 자료 목록과 유형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처명	발간연도
①	흥동기록(풀무·흥동소식·협동생활 영인본)	풀무학교	시골문화사	2018
②	흥성신문	-	흥성신문사	
③	마실통신	-	마을활력소	
④	마을연감	-	마을활력소	
⑤	새날의 전망	이찬갑	풀무학원	1974
⑥	산 믿음의 새 생활	이찬갑	흥성: 시골문화사	1994
⑦	농민 교육자 주옥로	주옥로, 홍순명 엮음	흥성: 그물코	2008
⑧	풀무학교를 열며	이찬갑	흥성: 그물코	2010
⑨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리는 풀무학교 이야기	홍순명	부키	2008
⑩	풀무공동체 바탕과 전망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흥성: 시골문화사	1998
⑪	풀무교육 50년: 다시 새날이 그리워 1~3	풀무교육 50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	흥성: 호성문화사	2008
⑫	생각하는 농민, 준비하는 마을: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	흥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	2000
⑬	마을공화국의 꿈, 흥동마을 이야기	충남발전연구원 + 흥동마을사람들	한티재	2014
⑭	『우리는 왜 농촌 마을 흥동을 찾는가』, 2017	송두범·김기홍· 박경철·이관률	흥성: 그물코	
⑮	풀무학교는 어떻게 지역을 바꾸나	이변영	그물코	2018
⑯	마을 1~9	마을학회 일소공도	흥성: 그물코 흥성: 시골문화사	2018~
⑰	웹진 일소공도	마을학회 일소공도	-	
⑱	그녀들의 흥동 이야기: 흥동허스토리	흥성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	2016 ~2019
⑲	우리 삶에 빛나던 날을 기억합니다	최루미	글을읽다	2018
⑳	갯골자서전	권정렬·노의영· 이승자·이승진· 이재자·주정자	그물코	2021
㉑	풀무의 삶과 배움	김현자	살림터	2022
㉒	텃밭달력 농사일지	꿈이사라는뜰 엮음	그물코	2023~

세 번째는 이 지역 실천의 내력이 다중의 차원을 향해 변환되어가는 현상이다. 공동체문화 실천 전반에서는 주체들이 자신의 실천을 그들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지식화/담론화하고 있는 흐름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지식생산의 주도권이 더 이상 학문 영역에 귀속되지 않는 현실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다만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이는 지역 실천의 어떤 면모를 단순히 반영하거나 재현하고 있는 자료로서 한정되기보다는, 주체적이고 집합적인 차원에서 지역 실천의 내력과 그 전망을 공통의 감각으로 만드는 과정을 담은 하나의 현장으로 주목될 수 있다. 그 과정을 다중의 형성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한다면, 일종의 ‘다중의 집회 현장’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천적 지식의 산물이라고 할 때, 활동가/실천가들은 그 실천의 기반과 내력, 가치와 사상을 간행물을 통해 공적인 관심사로 변환함으로써 특정할 수 없는 현 시대 다중을 형성/소집하는 매개자들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겠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현대적 조건 변화와 그 공동체의 합의의 측면에서는 지역/마을이라는 입지에서 전체 사회를 본다는 점에서, 탈중심적 장소를 기반으로 일방감시탐의 질서를 포위하는 다중감시체계<sup>32)</sup>로서 그 의의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

## 5. 하나의 연구 가능성, 관계생태로 보는 다른 삶의 지평

최근 민속/학을 연구하는 이들 사이에는 현장에 대한 강조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민속학 지식 생산의 경로와 성격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선행한다는 의견이 공유되곤 한다. 현지조사 또는 체류연구의 ‘기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구술기억이나 문헌기록 등 수집 자료의 성격과 내

32) 관련 내용은 전명산, 『국가에서 마을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변화에 대하여』, 갈무리, 2012 참조.

용을 엄밀하게 구분시키거나 해당 자료의 진위나 희소성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으로 정립해버릴 때, 소위 '현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증명될지 몰라도, 현장과 연구자 사이의 보이지 않는 담장은 더 명확해지거나 높게 쌓아지므로, 그 속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연구 주체는 그로부터 우월한 지위의 선점을 (비)의식적으로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속/학을 통과하는 현장 연구의 과정(사실은 배움의 과정)을 어떻게 가져 가야 할까에 대한 의문이 다음 세대에게는 던져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생산된 지식의 성과를 정교하게 판단하여 그 업적을 평가하는 일에 몰두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식의 생산자가 어떤 길 속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놓았는지, 그리고 그런 지식이 나로 하여금 어떤 영감을 주고 정동되도록 하는지, 또 그 지식이 그리는 전망이 얼마나 세상을 좋게 바꾸는지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장 혹은 사례들을 만나면서 지역살이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나와 이들이, 지역이 보이는 퇴조 혹은 개인 역량의 한계 속에서, 때로는 제도와 정책의 힘에 기대고 때로는 곁에서 함께 발 딛고 있는 이들에 기대어 나름의 삶 양식을 구축하고 그로부터 대안적 의미를, 얽힘 속에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비록 제한적이지만 얻어볼 수는 있었다. 조금은 잠정적이기는 해도, 연습하는 소멸의 위기 속에서 그것과 얽히고, 그러한 얽힘 속에서 이전에는 없던 좀더 다양한 삶의 양식들이 잠재적으로 또는 현행적으로 역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결론에 잠시 이르기도 한다. 물론 새로운 조건 혹은 블록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또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는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전망과 해석이 더욱 진지하게 숙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편재된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새로운 조건을 마주하면서 민속/학의 한 층으로서 공동체문화 연구가 그려온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의의를 다시 정리하고자 했다. 이 글의 관점에서 공동체문화

연구는 단순성에 기반하고 있는 근대적 인식들에 대한 비판적 견지를 유지하면서도 삶의 불확정성과 다층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관점 혹은 그 사유 방식으로서 유효하며, 그 지점에서 삶의 역량을 구성하는 토박이 문화이자 공생적 도구라는 점이 특히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물론 종획과 커먼즈를 둘러싼 논의를 경유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그동안 역사적 일회성으로 간주되어 온 자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종획에 맞서는 가치실천으로서 공동체문화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관점은, 민속/학이 기층의 문화를 재현하는 수준에 대한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기획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여기에 걸맞은 방식으로 구상되고 진행되었던 참여적 방법론의 다각화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우리 현실 속에서 가능한 만큼 구체화하는 한 가지 경로로 선택된 것으로, 연구와 실천의 경계를 넘나들거나 가로지르는 민속/학과 공동체문화 연구의 특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하겠다.

결국 공동체문화 연구는 민속연구의 전회이자 그 확장으로서, 위기 담론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는 지역(또는 로컬)의 문제계와 접촉함으로써 대안적 관계생태를 모색하는 실천적 지식 생산으로서 그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공동체문화 연구가 자본 중심의 가치체계에 포섭되지 않거나 그러기 어려운 다중(또는 다종)적 가치실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하나의 인문학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면, 이는 복잡성을 단순화하거나 얽히는 과정 자체를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유의 한 가지 조건으로 길어올리고 받아들이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는 물론 지난 연구 성과가 지닌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실험하고 확장하는 방향 속에서 진척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을 맺는 차원에서, 이른바 관계생태의 구체적 형식들에 대한 비판적인, 그러므로 대안적이고 실천적인 탐구를 초점으로 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즉 인간 자연과 비인간 자연, 전통과 현대, 자본

의 실천과 비자본적 실천이 복잡하게 얽히는 가운데 구성되는 실천들을 관계생태의 실제 양상으로 삼아 추적하고 탐구함으로써 기존의 국가와 자본 중심적 질서와는 다른 삶의 조직의 양태와 그 속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서는 각기 상이한 실천들이 지닌 대안적 가치와 작동 방식에 대한 해석을 진척시킴으로써 그 지속 내지는 전환에 대한 윤리적 차원의 문제설정을 핵심으로 하는 비판적 연구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현장 참여적 방법론을 통한 실천과의 긴밀한 결합이 효과적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즉 관계생태를 구성하는 실천 내지는 그 주체의 일부로서 '학'의 참여가 문제시되는 것이 어찌면 필연적이게 되었고, 그리하여 지식 생산의 전환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하여 지식 생산 자체가 하나의 상황적이거나 체현적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 글의 관점에서 향후의 과제는 관계생태의 구체적 형식들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검토를 수행하는 한편, 지난 역사 내지는 현재화된 삶 속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대안성과 실천성을 탐구하고 이를 이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문화 연구의 다른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는 복잡성과 얽힘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유의 자원으로 삼으면서, 위기의 시대에 대응하는 가치실천의 다른 조건들을 탐색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강석민, 「공동체문화 실천의 역사적 원천과 민속적 의미: 무교회주의와 아나키-코뮌의 연관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79집, 한국민속학회, 2024, 7~36쪽.
- \_\_\_\_\_, 「부채의 양가성과 공동체의 가능성: 흥동 지역의 자조(自助) 실험에 대한 민속적 접근」, 『코기토』 제105권,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5, 201~244쪽.
- \_\_\_\_\_, 「연대의 정동과 대안의 체제화: 충남 흥동 지역의 협동적 문화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205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3, 63~91쪽.
- \_\_\_\_\_, 『마을공화국의 실험과 전환: 공동체문화론으로 본 민속적 사회생태의 변환과 생성』, 민속원, 2024.
- 권범철,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제101호, 문화과학사, 2020, 17~49쪽.
- 안새롬,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ECO』 제24권 1호 한국환경사회학회, 2020, 333~370쪽.
- 윤여일·최현, 「21세기 한국학계 공동자원 연구의 전개와 과제」,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제5호, 국립경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23, 45~77쪽.
- 이영배, 『포크 모더니티의 언어들: 민속의 전회를 위한 분석 코드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5.
- 전명산, 『국가에서 마을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변화에 대하여』, 갈무리, 2012.
- 정영신,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제23권 4호, 한국아시아학회, 2020, 237~259쪽.
- Anna Lowenhaupt Tsing,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On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 노고운 옮김, 『세계 끝의 버섯: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삶의 가능성에 대하여』, 현실문화, 2023.
- Edgar Morin·최연구 대담, 「불확실성의 21세기 어떻게 맞을 것인가」, 『당대비평』 제5호, 생각의나무, 1999.
- Edgar Morin, *Introduction a La Pensee Complexe*, 신지은 옮김, 『복잡성 사고 입문』, 예코리브르, 2012.
- Harry Cleaver, *Reading Capital Politically*, 조정환 옮김,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갈무리, 2018.
- Ivan Illich, *Shawdow Work*, 노승영 옮김, 『그림자노동』, 사월의책, 2015.
- \_\_\_\_\_, *Tools for Conviviality*, 이한 옮김, 『성장을 멈춰라!』, 미토, 2004.
- J. K. Gibson Graham & Jenny Cameron & Stephen Healy, *Take Back The Economy: An Ethical Guide For Transforming Our Communities*

- Licensed*, 황성원 옮김,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타자들과 공존하기 위한 경제 탈환 프로젝트』, 동녘, 2014.
- J. K. Gibson Graham,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ew it*, 엄은희·이현재 옮김,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여성주의 정치경제 비판』, 알트, 2013.
- Karl Marx,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강신준 옮김, 『자본론』 I-2, 길, 2008.
- Maria Mies & Veronika Bennholdt-Thomsen, *The Subsistence Perspective: Beyond the Globalised Economy*, 꿈지모 옮김,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힐러리에게 암소를』, 동연, 2013.
- Massimo de Angelis, *The Beginning of History: Value Struggles and Global Capital*, 권범철 옮김, 『역사의 시작: 가치 투쟁과 전 지구적 자본』, 갈무리, 2019.
- Massimo De Angelis, "The Strategic Horizon of the Commons," in *Commoning: With George Caffentzis and Silvia Federici*, Ed., Camilli Barbagallo, Nicholas Beuret and David Harvie, Pluto Press, 2019.
- Midnight Notes, *The New Enclosures*, Jamaica Plain, MA: Midnight Notes, 1990.
- Silvia Federici & George Caffentzis, "Commons against and beyond Capitalism", 권범철 옮김, 『자본주의에 맞선 그리고 넘어선 커먼즈』, 『문화과학』 제101호, 문화과학사, 2020.
- Silvia Federici, *Revolution at Point Zero: Housework, Reproduction, and Feminist Struggle*, 황성원 옮김, 『혁명의 영점: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갈무리, 2013.

## Achievements and Possibilities of Community Culture Studies

Kang, Seok-Min

Thi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theoretical significance and methodological possibilities of community culture studies within the problematic of an era marked by pervasive crisis and uncertainty. It critically reflects on epistemological frameworks grounded in modernist simplicity and redefines folklore and community culture from a perspective that rethinks social dynamics while retaining the indeterminacy and multilayered nature of life. From this standpoint, folklore is understood as a vernacular culture that has constituted the capacities of life while contending with modernity, and as a form of convivial practice. In this context, the discussions of enclosure and the commons offer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community culture as a mode of value practice that resists the continuous enclosures of capital. Furthermore, through diversified forms of field-engaged methodology—it becomes essential to reflect 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community culture studies. As a turn and expansion of folklore studies, community culture research can be seen as a project of producing practical knowledge tha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relational ecologies by engaging with issues such as locality, youth, and ecology, which are increasingly invoked within contemporary crisis discourses. Ultimately, this

endeavor seeks to think through plural forms of value practice that contest capital-centered regimes of value by embracing complexity and entanglement themselves.

Key Words: Folklore, Community Culture, Enclosure, Commons,  
Maeul(village) Republic

· 논문투고일: 2026년 3월 3일 · 심사완료일: 2026년 4월 24일 · 게재결정일: 2026년 4월 28일